

보도자료

GS파워와 GE, 국내외 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

- 국내외 사업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약 체결로 공동 성장 추구
- 발전소 업그레이드, 북미 및 신흥 시장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연료 전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 협력
- 전문역량 결합으로 에너지 사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2015년 1월 22일, 서울) - (주)GS파워와 GE는 국내외 에너지와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사는 국내 발전소 성능 향상,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기술 개발을 비롯, 북미와 신흥시장의 인프라 개발과 참여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21일 역삼동 GS타워에서 거행된 협약식에는 GS파워의 손영기 사장과 GE코리아의 강성욱 총괄사장 등 양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S파워의 손영기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GS파워는 GE의 첨단기술과 글로벌 사업역량을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30년까지 신규발전소 4기 건설과 해외사업 진출로 국내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자사의 ‘2030 비전’ 달성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양 사의 기술과 사업 전문성을 결합해 발전사업을 비롯, 신규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도 성과와 시너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E코리아 강성욱 총괄사장은 “양 사는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내외 시장에서 공동 성장의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공동 발전하려는 GE의 한국 사업 전략에 따라, GE가 한국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적 제휴는 지난해 11월 방한한 GE의 제프 이멜트 회장과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가진 미팅의 후속 결과로써, 양 사의 회장이 증인으로 협약서에 친필 서명함으로써 이번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양 사는 우선적으로 GS파워의 부천 열병합발전소 개체(개조교체)사업의 협력에 본격 나서게 된다. GE는 세계 최대 가스터빈 공급사로서 주기와 전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GE는 지난 11월 GS파워의 안양 CHP(열병합발전) 개체사업의 주기기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앞으로 세계 최고효율의 대용량 가스터빈(7HA.02)과 스팀터빈 등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양 사는 GS파워의 플랜트 사업 경험과 GE의 발전 핵심기술 및 글로벌 발주정보 네트워크를 결합해 북미와 신흥시장의 발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공동으로 협력한다. GS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EPC시장 공동진출 및 사업협력 분야도 검토할 예정이며,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분야에서도 공조한다.

업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양 사는 고위관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구체적인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

(주)GS파워에 대하여

GS파워는 2000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 냉난방설비를 인수하여 출범한 회사로서,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냉난방설비를 통해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지역 냉난방열은 안양, 부천, 과천, 산본 신도시 등 약 30만 세대에 공급하고 있다. GS파워는 민간기업의 차별적인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성장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기존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중부발전소 열연계 사업, ESCO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소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에너지컨설팅사업 분야에까지 진출함으로써 GS파워의 비전인 'Clean Energy Frontier for Better Life'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GE에 대하여

글로벌 첨단 인프라 기술기업인 GE는 한국에서 1976년 출범 후 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며 장기 동반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발전, 수처리, 석유와 가스, 항공기 엔진, 헬스케어, 조명,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1,400 여명의 직원들이 일한다.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난 40년간 고효율의 가스터빈을 비롯, 발전 주기기 공급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발전 및 전력 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첨단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및 블로그 참조 (www.ge.com / www.gepower.com / www.ge.com/kr / www.geblog.kr)